



GENETICALLY MODIFIED ANIMALS

우생학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소

일식소가 야생동물이라면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소 180,000마리 중 단 1마리만이 유전적으로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계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이 기사는 우생학에 반대하는 근친교배 주장에 대한 철학적 사례를 제공합니다.

December 16, 2024에 인쇄됨



GMO 논쟁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

목차(TOC)

1. 🐄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소
 - 👉 유전적 관점에서 살아 있는 소는 단 50마리
2. 🤖 근친교배의 본질
 - 👉 마치 항문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3. 소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 🛡️ 누가 자연을 보호할 것인가?

우생학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소

들판에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유전학적으로 18만분의 1!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놀라운 기사에서, 유전자 분석은 순전히 숫자로 가려진 심각한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900만 마리의 소가 미국의 목초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유전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살아있는 소는 50마리에 불과 합니다.



Chad Dechow - 젖소 유전학 부교수 - 다른 사람들은 소들 사이에 유전적 유사성이 너무 많아서 유효 개체군 규모가 50마리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소가 야생 동물이라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범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중.**



소 전문가이자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인 *Leslie B. Hansen* 는 큰 근친교배 가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율은 근친교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미 소의 출산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이 번식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우리가 소를 사육하는 방식은 소를 멸종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원천: 석영 (PDF 백업)

바람직한 형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소 사육에 우생학 원칙을 적용한 결과, 유전적 다양성이 재앙적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소 계놈의 이러한 균질화는 업계에 시한폭탄을 의미하며 우생학적인 사고에 내재된 광범위한 위험에 대한 통렬한 예시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축 사육에 관한 이 사례 연구는 환원적인 과학적 수단을 통해 자연을 개선하려는 시도의 더 넓은 철학적, 실제적 함정에 대한 축소판 역할을 합니다.

우생학에 대한 근친교배 논쟁



우생학 기사는 우생학이 자연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부패**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의 인간 중심적 렌즈를 통해 진화를 지시함으로써 우생학은 탄력성과 ∞시간의 힘을 키우는 본질적인 과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회복력과 힘을 키우는 자연 진화의 다양성 추구 경향과 대조적으로, 우생학은 무한한 시간의 바다라는 맥락에서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내부 움직임은 근본적인 탈출 시도, 즉 자연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에서 가정된 특정 경험적 영역으로의 후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는 인류의 방향을 도덕적인 미래가 아닌 과거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멸적입니다.

모두를 위한 금발 머리와 파란 눈

유토피아

우생학의 핵심은 약점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근친교배의 본질에 있습니다.

생명 위에, 생명으로서 서려는 시도는 무한한 ∞시간의 바다에 가라앉는 형상의 돌을 낳는다.

이 심오한 진술은 우생학의 핵심에 있는 역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을 지닌 과학이 생명과 진화의 지도 원리로 승격될 때, 인류는 은유적으로 자신의 항문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자기참조 루프는 근친교배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유전자 풀이 점점 더 제한되고 취약해집니다.



과학의 결과물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며, 과거의 관찰과 데이터에 뿌리를 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관점이 미래의 진화를 안내하는 데 사용될 때, 이는 탄력성과 ∞시간의 힘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이고 도덕적 기반의 관점과 어긋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생학은 독단적인 확실성 가정, 즉 **동일과정설**에 대한 믿음에 의존합니다. **동일과정설**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확실성은 과학주의가 도덕성보다 과학적 관심을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무한한 범위 앞에서 그러한 확실성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파국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생학은 생명 그 자체이면서 생명 위에 서려고 시도함으로써 근친교배와 마찬가지로 강인함과 회복력보다는 약함을 축적하게 만드는 자기 참조 고리를 만듭니다.

소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우생학의 근본적인 지적 결함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것이 실질적인 방어와 관련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생학에 대한 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왜 자연과 동물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뒷자리로 물러나 우생학에 관해 침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 과학 장과 도덕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철학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과학의 수세기 동안의 지속적인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 동일 과정설: 우생학 뒤에 있는 독단은 철학 없이도 과학적 사실이 타당하다는 개념의 공간을 이루는 독단적 오류를 폭로했습니다.
- ▶ 🌐 생명의 지도 원리로서의 과학? 과학이 삶의 지침 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우생학으로부터 🐮 소을(를) 보호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info@gmodebate.org에서 여러분의 통찰력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December 16, 2024에 인쇄됨



GMO 논쟁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

© 2024 Philosophical.Ventures Inc.